

2천 년 역사가 깃든 곳 한성백제박물관

글 이승열 사진 조채은

수도 서울의 역사가 궁금하다면

서울은 조선시대에 첫 수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중국의 삼국사기를 살펴보면, 기원전 18년 온조가 백제 건국 당시 도읍을 한강 이남 지역인 하남위례성(후에 한성으로 지명 변경)으로 삼았으며, 475년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웅진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678년 동안 수도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당시 위례성과 함께 주성(主城)의 역할을 했던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그때의 문화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석촌동 고분군 등 백제시대 국가사적이 현재 서울 송파구 일대에 남아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다.

1





우리나라는 1980년대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발견된 백제의 유산을 발굴 및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수만 점 이상의 유물이 수습됐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귀중한 유산을 후대에 남겨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그렇게 2012년 '수도 서울'의 2천 년 역사를 담은 박물관이 세워졌는데, 그곳이 바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성백제박물관이다.

지루함 없이 흥미롭게

한성백제박물관은 총 3개의 전시실로 구성돼 있다. 제1전시실은 '서울의 선사'가 주제로, 강강에서 시작된 한반도 문명의 기원과 청동기 및 초기철기까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제2전시실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성장·발전하던 백제의 역사가 주를 이루며, 백제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과 일본, 중국 등 해외 관련 문화까지 포함돼 있다. 제3전시실에는 삼국시대 서울의 지리적 이점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또한, 서울을 빼앗긴 뒤 웅진(현재의 공주)과 사비(현재의 부여)에서 재기를 노리던 백제의 후기 역사를 만나볼 수 있다.

❶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성백제박물관



이 3개의 전시를 둘러보는 시간은 1시간 남짓.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역사를 둘러보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특별 전시와 몰입감을 높이는 문화행사 및 이벤트, 역사가 쉽게 느껴지는 교육프로그램까지 곁들일 수 있어 서울의 역사를 한층 재미있게 느낄 수 있다.

돌아가는 길, 자연 속 천천히 걷기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 또 다른 풍경이 우리를 맞이한다. 주인공은 무려 1,421,487㎡(약 43만 평)이 넘는 올림픽공원의 푸른 잔디다. 수천 년의 역사를 머릿속에 담은 후 뜨거워진 머리를 잠시 식히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올림픽공원의 잔디밭은 넓고 평평해 돛자리를

퍼놓고 간단한 간식을 즐기기에 좋다. 만약, 방문 시기가 가을쯤이라면 박물관 앞길도 지나칠 수 없다. 몽촌토성역 1번 출구부터 한성백제박물관 입구를 지나 올림픽공원의 가장자리까지 쪽 뺨은 산책길로, 샛노란색의 은행나무가 가득한 단풍 명소다. 이 길의 이름 역시 '위례성로', 백제시대 당시 서울의 이름을 사용했다. 과거 2천 년, 수도 서울의 아름다운 역사를 간직하고 현재의 아름다움 또한 만끽할 수 있는 이곳을 '천천히 걷기' 해보자. 🍃

- ❶ 한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백제시대 생활권
- ❷ 백제시대 유적들이 전시돼 있다.
- ❸ 박물관 앞 넓게 펼쳐진 잔디밭, 시민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다.